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에 따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모형*

Behavior Problem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
Causal Model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김 선 희**

Kim, Sun Hee

김 경 연***

Kim, Kyong Yeon

ABSTRACT

Data for this short-term longitudinal study were collected at 4 month intervals. Subjects were 423 children attending grades 4, 5, and 6 in Pusan and their mothers. Results showed that casual models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s differed by sex and types of behavior problems. For boys, mother's psychological problems, children's self-control, and their self-esteem directly influence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hile mother's psychological problems and children's perceived control parenting indirectly influenced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by way of self-esteem. Mother's psychological problems and boys' self-esteem directly influence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Girls' 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were influenced directly mother's psychological problems, children's negative emotionality, and peer acceptance. Mother's psychological problems and girls' perceived support from teachers influenced 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 directly. Based on these results the authors proposed an intervention program against children's behavior problems.

Key Words :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 위험요인(risk factors),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s)

* 2000년도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 가야대학교 아동학과 전임강사

*** 부산대학교 아동·주거학과 교수

I. 서론

아동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시에 능동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조절한다. 이러한 과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아동은 부적응을 일으켜 행동문제(behavior problems)를 보이기도 한다.

행동문제에 대한 연구들은 주로 행동문제의 원인과 발달과정에 관심을 가져왔는데 다수의 연구(권영옥·이정덕, 1999; 권윤아, 1997; 이경주·신효식, 1998; Chen, Rubin, & Li, 1997; Lamborn, Mounts, Steinberg, & Dornbusch, 1991; Marchand & Ellen, 1998)는 행동문제의 근원을 가족환경에서 찾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불안과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를 많이 가질수록, 부모가 아동을 정서적·신체적으로 학대할수록, 부모의 갈등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모가 통제적인 양육을 할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은 높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환경에서 이루어지는 또래 및 교사와의 상호작용은 아동 발달의 중요한 원천이 되는데 다수의 연구는 또래수용도가 낮거나(DeRosier, Kupersmidt, & Patterson, 1994), 교사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한미현, 1996; Cohen & Wills, 1985)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짐을 밝히고 있다.

한편,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해석하고 이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는데 있어 아동의 개인적 특성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환경에 대해 취약성(vulnerability)을 가진 개인은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환경에 대해 탄력성(resilience)을 가진 개인은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발달을 긍정적으로 이끌어 간다. 대표적인 취약성 요인은 바람직하지 못한 기질특성인데 기질특성의 하나인 부정적 정서성 수준

이 높을수록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다(김선희·김경연, 1999; Eisenberg & Fabes, 1994). 탄력성 요인 중에서는 자기통제력 수준이 높을수록(김선희·김경연, 1999; Brody & Flor, 1997), 그리고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심희옥, 1997) 아동의 행동문제 수준은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가족환경, 가족외부환경 및 아동개인적 특성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의 결과이며 이러한 복합적 관계를 이해하는데 ‘위험요인 - 보호요인 패러다임(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paradigm)’의 적용이 유용하다. 위험요인 - 보호요인 패러다임의 기본전제는 아동을 둘러싼 환경과 아동 개인적 특성에는 아동의 행동문제를 야기하는 위험요인과 위기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발달을 이끄는 보호요인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이다(Cohler, Stott, & Musick, 1995; Jessor, 1993). 일반적으로 위험요인은 부정적인 결과와 관련되는 상황 혹은 변인으로 정의되며 보호요인은 위험요인의 부재 혹은 낮은 위험수준으로 정의된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개별적으로 작용하기 보다 함께 작용하여 행동문제를 야기하는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복합적 상호작용은 ‘매개모델(mediated model)’의 설정을 통한 경로적인과모형을 검증함으로써 규명될 수 있다.

한편, 최근에 발표된 아동의 행동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행동문제에 대한 다수의 연구들이 임상집단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임상적 기준에 부합되는 심각한 행동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어 정상아동의 부적응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적

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이다. 인간의 발달에 대한 이해는 정상발달과 병리적 발달을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가능하다(양혜영, 1996).

둘째, 행동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청소년기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아동기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아동기는 유아기 혹은 청소년기와 구별되는 발달적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화가 두드러지지 않아 주목을 덜 받아왔다(Hamburg, 1992). 그러나 아동기의 행동문제는 청소년기와 성인기 행동문제의 전조로서 이후 적응의 중요한 지표가 된다.

셋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측정에 관한 것이다. 개인에 있어 중요한 환경적 요소는 개인이 환경에 대해 지각하는 상태이며, 그 환경에게 부여하는 의미이다(Bronfenbrenner, 1986). 그러므로 환경적 요인에 대한 아동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선행연구는 객관적 지표로 환경적 요인을 측정하고 있다. 여러 환경적 요인 중에서 부부갈등(Grych & Fincham, 1990), 부모의 통제적 양육행동(Jessop, 1981), 그리고 교사의 지지(한미현, 1996)는 객관적 지표보다 아동의 주관적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있어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선행연구의 문제점 외에도 아동의 행동문제를 검토할 때 고려될 사항은 아동의 성과 행동문제 유형별 접근이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발생빈도와 유형에서 비교적 뚜렷한 성차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행동문제 발생빈도는 여아보다 남아가 높으며 남아는 공격성, 비행과 같은 외재화 행동문제(externalizing behavior problems)를 주로 보이는 반면 여아는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재화 행동문제(internalizing behavior problems)를 주로 보인다(오경자, 1991; 한미현,

1996). 또한 우리나라 학령기 아동이 주로 보이는 행동문제는 과잉행동, 불안행동, 위축행동, 공격행동 및 미성숙 행동(한미현, 1996)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원인과 발달과정 또한 상이하다. 그러므로 행동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행동문제 유형별 접근이 필요하지만 공격성이 높은 아동은 반사회적 행동과 과잉행동을 동시에 보이거나 우울 경향성이 높은 아동이 동시에 불안경향성이 높게 나타나는 등 한 개인이 여러 행동문제를 동시에 가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행동문제 유형을 지나치게 세분화할 경우 발달과정에서의 뚜렷한 차이를 밝히기 힘들다(오경자, 1991). 비교적 동시발생적인 행동유형을 범주화하여 외재화 행동문제와 내재화 행동문제로 분류하는 방식(오경자·이혜련, 1990; Achenbach, 1991)은 행동문제의 원인규명과 발달과정에 대한 예측에 적절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행연구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임상집단이 아닌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과 발달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매개모델(mediated model)'에 근거하여 설정된 인과모형을 검증하는 것으로 아동의 성과 행동문제 유형별로 접근하되 단기 종단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위험요인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정적 관련성이 보고된 변인으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부부갈등, 아동학대, 통제적 양육행동,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며, 보호요인은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적 관련성이 보고된 변인인 동시에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조절할 것으로 예측되는 변인으로 또래수용도, 교사의 지지, 아동의 자기통제력, 아동의 자아존중감이다.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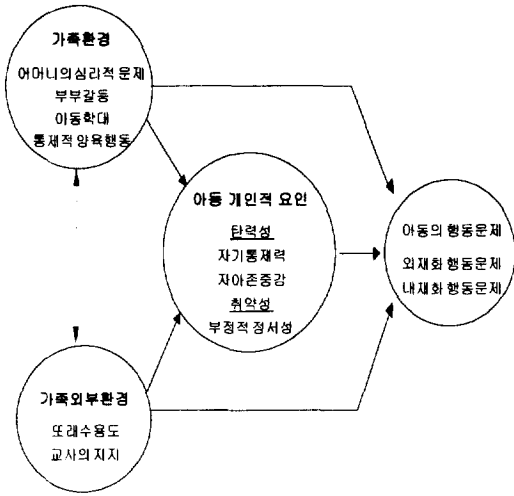


그림 1.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경로에 대한 인과모형

한 뒤 〈그림 1〉에 제시된 인과모형을 설정하였다. 인과모형에서 가족환경은 어머니의 특성과 가족구성원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나타내는 변

인들로 구성되며 이들 변인은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동 개인적 요인에 매개되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매개변인으로 설정된 아동 개인적 요인은 탄력성과 취약성으로 구성된다. 한편, 또래와 교사와의 관계로 구성된 가족외 부환경은 가족환경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아동 개인적 요인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된다.

전술된 연구목적을 토대로 다음의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은 행동문제 유형 및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은 행동문제 유형 및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시 소재 초등학교 4, 5,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 434명과 그 어머니이다. 부산시 5개 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5개교를 임의선정한 뒤 4, 5, 6학년 각 학년별로 6학급씩 총 18학급을 추출하였다. 연구대상을 임의선정한 이유는 본 연구가 동일아동을 대상으로 반복조사를 실시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담임교사의 동의가 필히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성별은 남아가 211명(48.6%), 여아가 223명(51.4%)으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 변인측정

1) 아동의 행동문제

김선희와 김경연(1998)이 제작한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를 보완·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수정된 척도는 외재화 행동문제 18문항과 내재화 행동문제 12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며 행동문제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된다. 각 문항은 1-4점 평정범주를 갖는다. 행동문제 점수는 행동문제 빈도와 행동문제 강도를 곱한 값으로 산출되며 각 문항의 점수범위는 1-16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문제 수준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외재화

행동문제의 Cronbach α 값은 1·2차 자료 각각 .92, .91이었으며 내재화 행동문제는 1·2차 자료 각각 .85, .87이었다.

2) 위험요인

2-1)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Derogatis(1983)의 Symptom Checklist - 90 - Revised(SCL-90-R)를 한양대 신경정신과에서 한국어판 표준화 도구로 개발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총 24문항으로 척도를 구성하였다. 각 문항에 대해 지난 2주 동안의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여 1 - 5점 평정범주에 반응케 하였다. Cronbach α 값은 1·2차 자료 각각 .94, .95였다.

2-2) 부부갈등

Crych 등(1992)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CPCI)를 권영옥과 이정덕(1997)이 번안·수정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이 중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계수가 낮은 문항을 제외하고 14문항을 선정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 - 5점 평정범주를 가지며 Cronbach α 값은 1·2차 자료 각각 .83, .87이었다.

2-3) 아동학대

Straus(1979)의 갈등책략척도(Conflict Tactics Scales; CTS)를 권윤아(1997)가 번안·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는 총 7문항으로 구성되며 각 문항은 1 - 5점 평정범주를 가지며 Cronbach α 값은 1·2차 자료 각각 .85, .88이었다.

2-4) 통제적 양육행동

박성연과 이숙(1990)이 제작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중에서 ‘권위주의적 통제’ 영역의

9문항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은 1 - 5점 평정범주를 가지며 Cronbach α 값 1·2차 자료 각각 .81, .76이었다.

2-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김경희(1997)가 제시한 한국아동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정서유형 12가지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12가지 정서 중 부정적 정서인 놀람, 슬픔, 불안, 혐오스러움, 분노, 수치심, 죄책감, 우울, 공포의 10가지 유형의 정서를 제시하고 그러한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1 - 4점 평정범주를 갖는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1차 조사 결과, 혐오스러움, 수치심, 죄책감은 초등학교 아동이 이해하기 힘든 정서유형으로 드러났으며 또한 이들 문항은 전체문항과 상관계수가 낮아서 이들을 제외하고 최종 7가지 정서유형만을 사용하였다. Cronbach α 값은 1·2차 자료 각각 .74, .75였다.

3) 보호요인

3-1) 또래수용도

해당학급의 모든 학생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제시하고 각 친구들과 얼마나 친하고 싶은지 평가하도록 하였다. 개별아동에 대한 평가는 1 - 5점 평정범주로 구성된다. 각 아동의 또래수용도 점수는 반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 평정한 점수들을 모두 합산한 뒤 평가자 수로 나눈 값이다.

3-2) 교사의 지지

한미현(1996)이 제작한 ‘사회적 지지’척도 중에서 교사의 지지 하위영역 8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 - 5점 평정범주를 가지며 Cronbach

α 값은 1·2차 자료 각각 .89, .90였다.

3-3) 아동의 자기통제력

Humphrey(1982)의 'Children's Self- Control Scale' 중에서 5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1-5점 평정범주를 가지며 Cronbach α 은 1·2차 자료 각각 .83, .78이었다.

3-4) 아동의 자아존중감

Rosenberg (1965)의 '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였다. 총 10문항 중에서 전체문항과 각 문항간 상관계수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을 사용하였다. 문항은 1-4점 평정범주를 가지며 Cronbach α 값은 1·2차 자료 각각 .80, .81이었다.

3. 자료수집

자료수집은 동일대상에 대해 약 4개월의 시간간격을 두고 2번 실시되었다. 1차 조사는 1999년 5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실시되었는데 본 연구자가 임의 선정한 해당 초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를 통해 어머니 용과 아동용이 한 쌍으로 구성된 630부의 질문

지를 배부한 뒤 어머니용과 아동용이 함께 회수되지 않은 경우 및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총 548부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 후 약 4개월이 지난 1999년 9월 6일부터 10일 사이에 1차 조사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차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정된 548명의 아동과 그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423부의 자료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7.52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중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 시 각기 다른 시기에 측정된 변수들을 인과적으로 분석하는 예측적 분석방법(prospective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아동의 행동문제는 결과변수에 해당하므로 2차 시기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은 원인 변수에 해당하므로 원칙상 1차 시기자료를 사용하되, 아동의 행동문제와 부정적 가정환경과의 관계에서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 아동 개인적 요인은 2차 시기 자료를 사용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상대적 영향력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이 행동문제 유형 및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시기와 아동의 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분석하였다.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1·2차 자료, 각각 $\beta = .32, p < .001, \beta = .51, p < .001$)와 통제적 양육행동(1차 자료에만, $\beta = .16, p < .05$)이 외재화 행동문제를 유의

<표 1>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N=434

변 인	1차 시기		2차 시기	
	남아	여아	남아	여아
	β	β	β	β
외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32***	.34***	.51***	.33***
부부갈등	-.06	.11	.06	-.01
아동학대	.08	-.02	.03	.04
통제적 양육행동	.16*	.09	.10	.11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02	.12	-.03	.15*
R ²	.13***	.18***	.31***	.19***

* p<.05 *** p<.001

하게 예측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차 시기 각각 13%, 31%이었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1·2차 자료, 각각 $\beta=.34$, $p<.001$, $\beta=.33$, $p<.001$)와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2차 자료에만, $\beta=.15$, $p<.05$)이 외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차 시기 각각 18%, 19%이었다. 반면, 부부갈등과 아동학대는 외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다음으로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아동의 자아존중감(1·2차 자료, 각각 $\beta=-.14$, $p<.05$, $\beta=-.16$, $p<.05$)과 아동의 자기통제력(2차 자료에만, $\beta=-.16$, $p<.05$)이 외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차 시기 각각 6%, 10%이었다. 여아의 경우, 또래수용도(1·2차 자료, 각각 $\beta=-.19$, $p<.01$, $\beta=-.22$, $p<.001$)만이 외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변수로

<표 2>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N=434

변 인	1차 시기		2차 시기	
	남아	여아	남아	여아
	β	β	β	β
외재화 행동문제				
또래수용도	-.11	-.19**	-.07	-.22***
교사 지지	-.09	-.02	-.06	-.08
아동의 자기통제력	.05	-.07	-.16*	-.14
아동의 자아존중감	-.14*	-.13	-.16*	-.03
R ²	.06*	.08***	.10***	.11***

* p<.05 ** p<.01 *** p<.001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차 시기 각각 8%, 11%이었다. 반면, 교사 지지는 외재화 행동문제를 예측하지 못했다.

한편,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N=434

변 인	1차 시기		2차 시기	
	남아	여아	남아	여아
	β	β	β	β
내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32***	.28***	.52***	.21**
부부갈등	-.09	.06	.12*	.11
아동학대	-.06	-.08	-.09	-.11
통제적 양육행동	.08	-.06	-.11	-.03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14*	.18**	.01	-.08
R ²	.16***	.13***	.29***	.07*

* p<.05 ** p<.01 *** p<.001

<표 3>에 의하면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은 아동의 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남녀 아동 모두 어머니의 심리

적 문제(남아의 경우, 1·2차 자료 각각 $\beta = .32, p < .001, \beta = .52, p < .001$; 여아의 경우, 1·2차 자료 각각 $\beta = .28, p < .001, \beta = .21, p < .001$)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남아의 경우, 1차 자료에만 $\beta = .14, p < .05$; 여아의 경우, 1차 자료에만 $\beta = .18, p < .01$)이 유의한 예측변인이었다. 여아와 달리 남아의 경우 부부갈등(2차 자료에만 $\beta = .12, p < .05$)이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남아의 경우, 1·2차 시기 각각 16%, 29%이었고 여아의 경우, 1·2차 시기 각각 13%, 7%이었다. 반면 아동학대와 통제적 양육행동은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N=434

변 인	1차 시기		2차 시기	
	남아	여아	남아	여아
	β	β	β	β
내재화 행동문제				
또래수용도	-.05	-.12	-.02	-.06
교사 지지	-.01	-.01	-.01	-.22**
아동의 자기통제력	-.13	-.04	-.04	-.08
아동의 자아존중감	-.23**	-.09	-.29***	-.03
R ²	.05*	.03	.10***	.08*

* p<.05 ** p<.01 *** p<.001

<표 4>에 의하면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은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 아동의 자아

존중감(1·2차 자료 각각 $\beta = -.23, p < .01, \beta = -.29, p < .001$)만이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차 시기 각각 5%, 10%이었다. 여아의 경우, 교사 지지(2차 자료에만 $\beta = -.22, p < .01$)만이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해 주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들 변수들의 설명력은 1·2차 시기 각각 3%, 8%이었다. 한편 또래수용도와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내재화 행동문제를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했다.

2.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적 관련성

아동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인과적 관련성이 행동문제 유형 및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알아보기 위해 연구문제 1의 결과에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선정하여 앞서 제시한 인과적 모델(그림 1)에 따라 인과적 경로모형을 설정하고 중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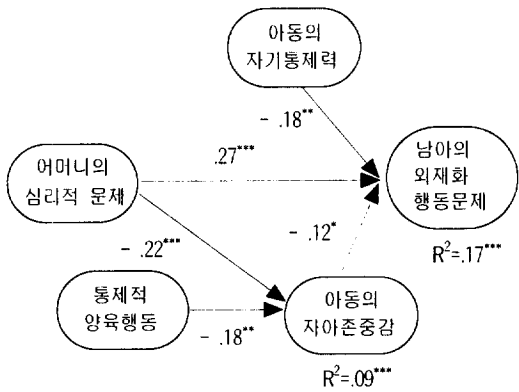
1)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적 관련성

<표 5>와 <그림 2>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beta = .27, p < .001$)을 미치는 동시에 아동의 자아존중감($\beta = -.22, p < .001$)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반면, 통제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였지만 경로분석 결과 유의한 영향력이 밝혀지지 않았다. 통제적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는 별개로 아동의 자아존중감($\beta = -.18, p < .01$)을 통해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표 5〉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통제적 양육행동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07	.01
	아동의 자기통제력	-.05	.01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22***	.09***
	통제적 양육행동	-.18**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27***	.17***
	통제적 양육행동	.10	
	아동의 자기통제력	-.18**	
	아동의 자아존중감	-.12*	

* p<.05 ** p<.01 *** p<.001



〈그림 2〉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경로적 인과모형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아동의 자기통제력 ($\beta = -.18, p < .01$)과 아동의 자아존중감 ($\beta = -.12, p < .05$)은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아동의 자기통제력에 대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통제적 양육행동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의 자기통제력은 이들 위험요인과는 무관하게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부적영향을 미쳤다.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이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직·간접적인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에 의하면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아동의 자기통제력, 아동의 자아존중감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통제적 양육행동이다. 한편 통제적 양육행동은 총인과효과 ($\beta = .02$)보다 비인과효과 ($\beta = .13$)가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나 외재화 행동문제와 통제적 양육행동간의 상관점수(총체적 효과인, $r = .15$)의 대부분이 제 3의 변인에 의해 설명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적 관련성

<표 7>과 <그림 3>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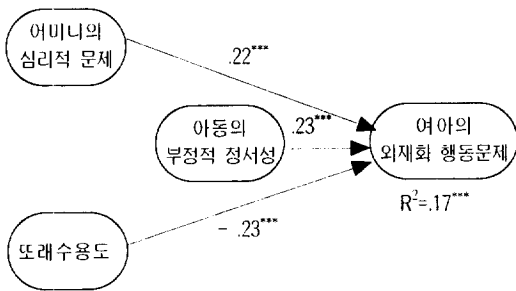
〈표 6〉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31	.27	.03	.30	.01
	통제적 양육행동	.15	--	.02	.02	.13
	아동의 자기통제력	-.23	-.18	--	-.18	-.05
	아동의 자아존중감	-.25	-.12	--	-.12	-.13

<표 7>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09	.01
	또래수용도	-.04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22***	.17***
	또래수용도	-.23***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23***	

*** p<.001



<그림 3>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경로적 인과모형

영향($\beta = .22, p < .001$)을 미쳤으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간에 매개변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다. 즉,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의 영향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반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는 별개로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직접적

인 영향($\beta = -.23, p < .001$)을 미쳤다. 또한 또래 수용도는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beta = -.23, p < .001$)을 미쳤다.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이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직·간접적인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에 의하면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또래수용도,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간접적인 영향은 확인할 수 없다. <그림 3>의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경로적 인과모형에서 보듯이 매개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또래수용도와 같은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는 특성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개인의 취약성은 위험요인의 영향력을 가중시키는 양상으로 관련됨이 보고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선정한 위험요인 외의 다른 변인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으며, 혹은 외재화 행동문제의 근원적인 문제로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쉽게 받지 않는 특성일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후연구들이 필요하리라 본다.

3)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적 관련성

<표 9>과 <그림 4>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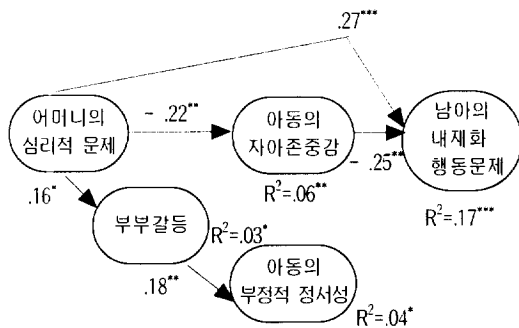
<표 8>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문제	.25	.22	--	.22	.03
	또래수용도	-.27	-.23	--	-.23	-.04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25	.23	--	.23	.02

<표 9>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부부갈등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16*	.03*
아동의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22**	.06**
	부부갈등	-.0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06	.04*
	부부갈등	.18**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27***	.17***
	부부갈등	.01	
	아동의 자아존중감	-.25**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01	

* p<.05 ** p<.01 *** p<.001



<그림 4>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경로적 인과모형

영향($\beta = .27, p < .001$)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beta = -.22, p < .001$)을 미쳤다. 또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부부갈등을 통해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에 간접적인 영향($\beta = .16, p < .05$)을 미쳤으나 이 경로는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와는 무관했다. 그리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부부갈등, 그리고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간에 매개변인으로도 작용하지 않았다.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이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직·간접적인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10>에 제시하였다.

<표 10>에 의하면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아동의 자아존중감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이다. 반면, 부부갈등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대해 어떠한 인과효과도 보이지 않았다.

4)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적 관련성

<표 11>과 <그림 5>에 의하면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beta = .17, p < .05$)을 미쳤으며 교사의 지지 또한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beta = -.23, p < .001$)을 미쳤다. 그러나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및 교사의 지지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이라고

<표 10>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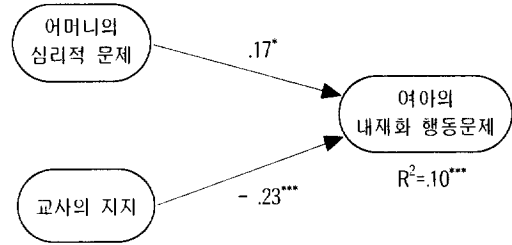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문제	.33	.27	.06	.33	.00
	부부갈등	.08	--	--	--	.08
	아동의 자아존중감	-.32	-.25	--	-.25	-.07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08	--	--	--	.08

<표 11>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중회귀분석 결과표

종속변인	독립변인	β	R^2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09	.01
	교사의 지지	-.11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17*	.10***
	교사의 지지	-.23***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10	

* p<.05 *** p<.001

예측되었던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매개변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이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직·간접적인 인과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표 12>에 제시하였다.



<그림 5>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경로적 인과모형

<표 12>에 의하면,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교사의 지지였고,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은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해 인과효과를 가지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 변인들의 간접적 영향은 확인할 수 없었다.

<표 12>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인과효과

종속변수	독립변수	총체적 효과	인과효과			비인과효과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19	.17	--	.17	.02
	교사의 지지	-.25	-.23	--	-.23	-.02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	.14	--	--	--	.14

IV. 종합논의

1.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학령기 아동의 행동문제의 원인과 발달과정을 규명하기 위하여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인과모형을 설정·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아동의 성과 행동문제 유형별 접근과 단기중단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동의 외재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의 인과모형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달랐는데 남아의 경우엔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부부갈등, 및 통제적 양육행동과 같은 가족 환경적 요인과 아동의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과 같은 아동 개인의 탄력성 요인이 외재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지만, 여아의 경우엔 어머니의 심

리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또래수용도 및 교사의 지지와 같은 가족외부 환경적 요인과 아동의 부정적 정서성과 같은 아동 개인의 취약성 요인이 외재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몇 가지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남아의 행동문제는 부정적인 가족환경과 아동 개인의 탄력성 요인의 영향을 받는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정적인 가족환경인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와 통제적 양육행동은 탄력성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저하된 자아존중감은 행동문제를 야기했다.

Leadbeater, Kuperminc, Blatt, 그리고 Hertzog (1999)에 의하면 부정적 외부환경의 영향에 대해 자기비난적 취약성(자아존중감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됨)을 가진 개인은 죄책감, 무력감, 무가치감에 집착하여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피하고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외재화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 이러한 경향성은 남아의 경우 더 뚜렷하다.

남아의 자아존중감은 외재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에 있어 중요한 예측변인 동시에 매개변인이다. 아동 자신에 대한 가치감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은 개인이 가지는 긍정적인 자원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러한 관련성이 남아에게만 나타난 이유는 남아가 여아에 비해 자기주장성이 강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해 더 높은 기대수준을 갖기(Berk, 1991)때문에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낮은 남아일수록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 및 내재화 행동문제는 가족환경 뿐 아니라 가족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았다. 즉, 또래수용도 및 교사의 지지 수준이 낮을수록 여아는 더 많은 행동문제를

일으켰다. DeRosier 등(1994)에 의하면 학령기는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가 두드러지는 시기이므로 다른 아이에 비해 인기가 없거나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아동은 행동문제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양상은 여아의 경우 더 뚜렷한데, 이는 남아에 비해 여아가 대인관계에 민감하도록 사회화된다는 견해(Leadbeater et al., 1999)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아는 대인관계에 민감하기 때문에 학령기 아동에게 중요한 대상인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민감하며 친구에게 심리적으로 더 많이 의존한다.

셋째, 여아의 경우엔 아동 개인의 탄력성 보다 취약성이 행동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아동의 취약성인 부정적 정서성은 기질의 하위 영역으로 개인차를 설명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변인이며 아동의 행동을 예언하는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어 왔다. Eisenberg 등(1995)과 Rothbart 등(1994)은 부정적 정서성이 공격성과 같은 외재화 행동문제를 야기함을 주장한다. 본 연구에서 부정적 정서성이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여아가 남아 보다 정서적으로 민감하다(Berk, 1991)는 일반적 사실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여아는 외부의 부정적 환경에 대해 정서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며 슬픔과 분노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한다(이지선·유안진, 1999). 이러한 부정적 정서의 표현은 행동문제를 이끌 가능성을 높인다.

넷째, 아동의 행동문제의 유형과 아동의 성과 무관하게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외·내재화 행동문제 수준이 높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는 다수의 선행연구(Compas et al., 1989; Hammen, Burge, & Stansbury, 1990; Marchand & Ellen, 1998)와

일치한다.

2. 연구의 의의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의 의의는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요인 및 보호요인, 그리고 이들 위기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성된 인과모형이 행동문제 유형과 아동의 성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한 것이다. 이를 토대로 아동의 행동문제 중재 프로그램의 구성방안에 대해 몇 가지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는 남녀 아동의 외·내재화 행동문제에 전반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인데, 어머니의 심리적 문제의 원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같은 개인외적인 것과 부정적인 귀인양식과 같은 개인내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어머니의 부정적인 귀인양식은 자녀의 행동을 실제 보다도 더 문제시 여길 가능성을 증가시켜 아동에 대해 강압적인 양육행동을 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경우는 아동중심의 중재 프로그램보다 부모참여 중재 프로그램을 통해 어머니의 사고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며 개별상담이 아닌 집단상담을 통해 다른 어머니와 함께 자녀의 행동에 대해 이야기함으로써 다른 아동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다.

둘째, 외재화 행동문제는 남아의 경우 통제적 양육행동, 자기통제력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지만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과 또래수용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동일한 행동문제 유형이라 하더라도 아동의 성에 따라 중재 프로그램이 달라야 함을 시사한다. 남아의 외재화 행동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자기통제력과 자아존중감 향상에 주안점을 둔 중재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며,

여아의 외재화 행동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조절할 수 있는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아와 달리 여아는 또래관계에서 긍정적인 자원을 얻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아의 또래수용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한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는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셋째, 내재화 행동문제는 남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부부갈등 및 자아존중감의 영향을 받지만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과 교사의 지지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녀 아동 모두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부정적 정서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서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또한, 남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구성하여야 하며, 여아의 내재화 행동문제를 중재하기 위해서는 아동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이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토대로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영향력을 추적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의 종단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것 이외에 아동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적인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과 확인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내재화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설명력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는데, 귀인양식과 무력감과 같은 아동의 인지적 특성이 내재화 행동문제의 설명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아동의 행동문제 유형과 성별에 따라 관련된 매개변인의 탐색과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여아의 행동문제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간의 인과모델 탐색에서 예측된 매개적 모델이 검증되지 못했다. 여아의 행동문제에 대해 부정적 정서성은 정서조절력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또래수용도 혹은 교사의 지지는 대인관계 민감성을 매개변인으로 하여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그 효과가 확인되지 못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들을 임상집단 아동을 대상으로 교차적으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정상아동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효과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참 고 문 헌

- 권영옥·이정덕(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척도 (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권영옥·이정덕(1999). 부부갈등과 아동의 행동문제. 아동학회지, 20(1), 115-133.
- 권윤아(1997). 실업계 여고생의 가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및 가출유형분석 - 개인, 가족, 또래 및 학교변인 중심으로 -.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1997). 한국아동의 정서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0(1), 43-56.
- 김선희·김경연(1998). 아동 및 청소년의 행동문제 척도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4), 155-166.
- 김선희·김경연(1999). 아동의 행동문제와 관련변인간의 인과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1), 155-166.
- 박성연·이숙(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8(1), 141-156.
- 심희옥(1997). 아동 후기 초등학교 학생의 내적·외적 문제행동인 우울성향과 반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아동학회지, 18(1), 39-51.
- 양혜영 역(1996). 아동발달과 정신병리. 서울 : 배영사. 15-54, 83-91.
- 오경자(1991). 아동·청소년 문제행동의 분류 및 진단. 한국아동학회 추계 워크샵. 5-20.
- 오경자·이혜련(1990). 아동 청소년 문제행동 평가 척도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신경정신의학, 29(2), 452-462.
- 이경주·신효식(1998).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49.
- 이지선·유안진(1999). 분노 및 슬픔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1(3), 123-137.
- 한미현(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Achenbach, T. M.(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 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Dept. of Psychiatry, Univ. of Vermont.
- Berk, L. E.(1991). *Child development*(2nd ed). Boston : Allyn and Bacon.
- Brody, G. H., & Flor, D. L.(1997). Maternal psychological functioning, family processes, and child adjustment in rural, single-parent, African American families.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1000-1011.
- Bronfenbrenner, U.(1986). Ecology of the family as a context for human development : Research perspectives. *Developmental Psychology*, 22(6), 723-742.
- Chen, X., Rubin, K. H., & Li, B.(1997). Maternal acceptance and social and school adjustment in

- Chinese children : a four-year longitudinal study. *Merrill-Palmer Quarterly*, 43(4), 663-681.
-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ocial support and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310-357.
- Cohler, B. J., Stott, F. M., & Musick, J. S.(1995). Adversity,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 cultur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In Cicchetti, D. & Cohen, D. (Eds.),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Vol. 2 : Risk, Disorder, and Adaptation* (pp.753-800). NY : John Wiley & Sons.
- Compas, B. E., Howell, D. C., Phares, V., Williams, R. A., & Giunta, C. T.(1989). Risk factor for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in young adolescents : a prospective analysis of adolescent and parental stress and symptom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6), 732-740.
- Derogatis, L. R. (1983). *SCL-90-R administration, scoring, & procedures manual*. Towson, MD : Clinical Psychology Research.
- DeRosier, M. E., Kupersmidt, J. B., & Patterson, C. J.(1994). Children's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the chronicity and proximity of peer rejection. *Child Development*, 65, 1799-1813.
- Eisenberg, N., & Fabes, R. A.(1994). Children's enacted interpersonal strategies : Their relations to social behavior and negative emotionality.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2-232.
- Eisenberg, N., Fabes, R. A., Murphy, B., Maszk, P., Smith, M., & Karborn, M.(1995). The role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in children's social functioning : A longitudinal Study. *Child Development*, 66, 1360-1384.
- Grych, J. H., & Fincham, F. D.(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Hamburg, D. A.(1992). The transition to elementary school and development in middle childhood. In Hamburg, D. A., *Today's children : Creating a future for a generation in crisis* (pp171-180). U S : Random House.
- Hammen, C., Burge, D., & Stansbury, K.(1990). Relationship of mother and child variables to child outcomes in a high-risk sample : A causal modeling analysis. *Developmental Psychology*, 26(1), 24-30.
- Humphrey, L. L.(1982). Children's and teachers' perspectives on children's self-control : The development of two rating scales. *J.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0, 624-633.
- Jessop, D. J.(1981). Family relationship as viewed by parents and adolescents : a specification.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95-107.
- Jessor, R.(1993). Successful adolescent development among youth in high-risk settings. *American Psychologist*, 48(2), 117-126.
- Lamborn, S. D., Mounts, N. S., Steinberg, L., & Dornbusch, S. M.(1991). Patterns of competence and adjustment among adolescents from authoritative, authoritarian, indulgent, and neglectful families. *Child Development*, 62, 1137-1146.
- Leadbeater, B. J., Kuperminc, G. P., Blatt, S. J., & Hertzog, C.(1999). A multivariate model of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Developmental Psychology*, 35, 1268-1282.
- Marchand, J. F., & Ellen, H.(1998). The relation of problem behaviors in preschool children to depressive symptoms in mothers and fathers. *J. of Genetic Psychology*, 159, 353-367.
- Rosenberg, M(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Princeton Univ. Press.
- Rorhbart, M. K., Ahadi, S. A., & Hershey, K. L. (1994). Temperament and social behavior in childhood. *Merrill-Palmer Quarterly*, 40, 21-39.